

# 신규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,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, 간호실무준비도가 현장적응에 미치는 영향

최경희<sup>1\*</sup>, 김원경<sup>2</sup>

<sup>1</sup>첨단종합병원 응급실 간호팀장, <sup>2</sup>남부대학교 간호학과

## BACKGROUND & AIMS

[연구필요성] 신규간호사는 임상현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 쉬우며, 이는 높은 이직률로 이어질 수 있다. 본 연구는 간호전문직관,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, 간호실무준비도가 신규간호사의 현장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, 임상현장의 이직률 감소 및 간호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.

[연구목적] 신규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,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, 간호실무준비도, 현장적응의 차이를 분석하고, 이들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며, 현장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.

## METHODS

[연구대상] G광역시 소재 4개 종합병원에 재직 중인 12개월 미만 신규간호사 188명

[연구기간] 2025년 7월 14일 ~ 7월 28일

[자료분석] SPSS/WIN 26.0 프로그램 활용 빈도, 백분율, 평균, 표준편차, t-test, ANOVA, Scheffé 사후검정, Pearson 상관분석, 다중회귀분석

## RESULTS

신규간호사의 현장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전문직관( $\beta=.28, p<.001$ ), 간호실무준비도( $\beta=.39, p<.001$ ), 근무부서 만족도( $\beta=.14, p=.003$ ), 희망휴일에 휴가 사용( $\beta=.10, p=.014$ ), 자신의 건강상태가 '건강하다'( $\beta=.41, p<.001$ )와 '보통이다'( $\beta=.37, p<.001$ ), 재학 중 임상실습 만족도( $\beta=.27, p=.003$ )이었으며,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72.1%였다( $F=49.26, p<.001$ ).

즉,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실무준비도가 높고, 근무부서에 만족할수록 현장적응 수준이 높았다.

Table 1. 대상자의 현장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(N=188)

	B	$\beta$	t	p	VIF
(상수)	-0.65		-2.54	.012	
희망부서 배치(예)*	0.11	.06	1.55	.123	1.15
부서 만족도(만족)**	0.16	.14	2.99	.003	1.39
희망휴일에 휴가(예)†	0.14	.10	2.47	.014	1.06
자신의 건강상태(건강하다)**	0.45	.41	4.57	<.001	5.43
자신의 건강상태(보통이다)**	0.39	.37	4.08	<.001	5.40
재학 중 임상실습 만족도(보통)***	0.11	.10	1.12	.264	5.00
재학 중 임상실습 만족도(만족)***	0.30	.27	2.99	.003	5.27
간호전문직관	0.33	.28	5.91	<.001	1.49
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	0.00	.07	1.36	0.176	2.00
간호실무준비도	0.53	.39	6.62	<.001	2.35

Durbin Watson = 1.77 R<sup>2</sup> = .736 Adj R<sup>2</sup> = .721

F(p) = 49.26(<.001)

ref: \*희망부서 배치(아니오), \*\*부서 만족도(보통이하), †희망휴일에 휴가(아니오), \*\*자신의 건강상태(허약하다), \*\*\*임상실습 만족도(불만족)

## CONCLUSIONS

간호대학은 간호전문직관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표준화된 실습교육을 강화해야 하며,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적성과 선호를 반영한 실습부서 배치 및 자기 건강관리 교육이 필요하다. 의료기관은 채용 시 예정 부서를 안내하고, 희망부서 배치 및 휴가 사용을 보장함으로써 부서 만족도와 현장적응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.

[Key Word] Nurses; Professionalism; Clinical competence; Clinical practice; Adaptation, Psychological